

모음의 음운 변동

1. 모음 탈락 (형태 음운 변동 + 표기 반영)

동음 탈락

▷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과 동일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둘 중 한 모음이 탈락함.

ex) 가다 + -아서 = 가서 [가서] => 'ㅏ' 하나 탈락.
(참고로 어간의 'ㅏ'와 어미의 'ㅏ' 중 무엇이 탈락하는지는 규명되지 않음.)

'-' 탈락

▷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 '-'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'-'가 탈락함.

ex) 담그다 + -아 = 담가 [담가]

잠그다 + -아 = 잠가 [잠가]

우러르다 + -아 = 우러러 [우러러]

들르다 + -아 = 들러 [들러]

다다르다 + -아 = 다다라 [다다라]

치르다 + -어 = 치러 [치러]

이후 태운
용언의 불규칙
활용과 헷갈
리지 말 것

모음의 음운 변동

2. 교체 - 반모음화 (모음 축약이라고도 함.)

▷ 용언 어간 끝음절 단모음 'ㅣ' 또는 'ㄴ/ㄷ'
뒤에 모음 어미가 오면 단모음 'ㅣ' 또는 'ㄴ/ㄷ'
가 반모음 'ㅟ' 또는 'ㅜ'로 바뀌어 뒤의 모음과
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는 현상. 필수적인 현상은
아님. (형태 음운 변동 + 포기 반영)

ex) 보다 + -아 = 보아 [보아] / 봐 [봐^ㅟ]
ㅂ/ㄴ/ㄷ vs ㅂ/ㅜ/ㅟ

▷ 다만 '이리 와' 처럼 초성이 없는 단모음 'ㅣ'
또는 'ㄴ/ㄷ' 뒤에 모음 어미가 오면 반드시
이중 모음으로 축약됨. '이리 오아' 라고 안함.

※ 되다 + -어 = 되어 [되어] / 왜 [왜:]

는 과거 '니'가 이중 모음이던 것과

관련된 것으로 오늘날 잘 설명되지 않음.

모음의 음운 변동

3. 첨가 - 반모음 첨가

▷ 용언 어간 끝음절 모음 'i, ɨ, ɯ' 뒤에 'j'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반모음 'j'가 첨가되는 현상. 필수적인 현상은 아님.

(형태 음운 변동 + 표기 반영 X)

ex) 피다 + -어 = 피어 [피어 / 피여]

→ ㅍ / i / ɰ vs ㅍ / i / j / ɰ

되다 + -어 = 되어 [되어 / 되여]

→ ㄷ / ɨ / ɰ vs ㄷ / ɨ / j / ɰ

사잇소리 완벽 분석

▷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 '시'의 흔적임.

▷ '명사 + 명사' 구조의 종속 합성 명사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며 / 앞말에 사이시옷을 표기할 자리가 있으면서 (받침이 없으면서) /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유어가 구성 요소일 때, 사이시옷이 표기됨.

▷ '명사 + 명사' 구조의 종속 합성 명사일지라도 항상 일어나는 현상은 아님.

▷ 따라서 사잇소리 i) 된소리되기는 앞에서 나온 된소리되기과 별개로 취급해야 함.

▷ 합성 전에도 앞말 종성이 '시'로 끝나는 단어와 헷갈리지 말 것.

ex) 버섯 + 국 = 버섯국 [버선국] → 보통의 된소리되기.

사잇소리 현상의 종류

i)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나고 뒷말이 안울림 예사소리로 시작하며 합성어가 될 때, 뒷말 초성이 된소리가 됨.

ex) 초 + 불 = 초불 [초불 / 초뿔]

※ 된소리되기만 일어난 [초뿔]이 원칙 발음임.

사잇소리가 들어간 표기만 보고 '초뿔 → 초뿔 → 초뿔' 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됨. 반드시 사잇소리 현상은 합성 과정을 보고 판단해야 보통의 된소리되기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음. 이는 ii), iii)도 마찬가지.

산 + 길 = 산길 [산길]

등 + 불 = 등불 [등불]

ii)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피음으로 시작하며
합성될 때, 앞말 종성에 'ㄴ'이 첨가됨.

ex) 이 + 몸 = 잇몸 [인몸]

코 + 날 = 콧날 [큰날]

·X· 보통의 'ㄴ' 첨가는 뒷말 초성에서 일어남.

그러므로 보통의 'ㄴ' 첨가와 구별해야 함.

iii)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며
합성될 때, 앞말 종성과 뒷말 초성에 'ㄴ'이 첨가됨.

ex) 깨 + 윷 = 껏윷 [껏넛]

나무 + 윷 = 나뭇윷 [나무넛]

베개 + 잇 = 베갯잇 [베갯넛]